

第 47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95. 2. 24 ~ 2. 28.)

忠清北道教育委員會

（附錄）海峽殖民地總督府 函 件 錄

本會總覽

（一九二一—一九二二）

新加坡總督府印務局

I.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제1차 본회의 3

II.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제2차 본회의 7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33

2.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경계획안 (2/1) 35

3.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45

IV. 별 책 부 록

1.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경계획안(2/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2월 24일 (금요일) 15시 00분

議事日程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5시 00분 개의)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 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착석)

이상으로 개최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

1. 경과보고

(15시 01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및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2월 16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 날자로 집회 공고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처리하실 안건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 기간 중에 의안관련 현장 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5시 02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2월 25일과 27일은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15시 04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세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과 사용허가에 대한 관

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취득으로는 신설 국민학교 부지 만 1,570평방미터, 실습지및 학교 용지 2,216평방미터와 도서관 부지내 국유지 44평방미터 등 총 만 3,83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수영장 1개소및 연수실 1동, 실습실및 계단실 18.5실, 화장실 1실, 강당 1동, 사택 5동, 도서관 1동, 유치원사 1동 등 총 만 1,576평방미터를 신·증축하고 증평 출장소에서 증평국민학교 부지내에 건립한 도서관 1동 1,039평방미터를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둘째 처분으로는 도로편입및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지 만 5,594평방미터, 군북분교외 4개 폐교 학교부지 3만 8,421평방미터, 영동도서관 부지 258평방미터, 총 5만 4,273평방미터의 토지와, 위 처분 부지내에 있는 교실 및 부속 건물 5,159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셋째 사용허가로는 폐지학교인 충주 강천국민학교 단암분교, 성남국민학교 동신분교와 청원 만수국민학교 공북분교를 유상 사용허가하고 청원 강내국민학교 저산분교를 교원대학교에 무상 임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현지 확인을 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5시 09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응복, 김광수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하고 말함)

의의가 없으므로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응복, 김광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휴회기간 중에 현장 방문에는 모든 위원님께서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제47회-제1차]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정인영,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상찬,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2/1) : 별첨2

※ 별 책 부 록

-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2/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2월 28일 (화요일) 14시 30분

議事日程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3. 기타안건처리

(14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14시 30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이상일위원의 세 분 위원으로부터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들으시고 현지 확인을 거치신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이상일위원의 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14시 31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이상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상일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본인의 3인으로 발의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제출한 금회 변경계획안중 영동교육청 직원 사택 매입 계획은 폐교 재산인 기본 교육시설을 처분하여 교육청 직원사택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 재산의 재원은 일선 교육환경개선 부문에 우선 투자함이 바람직할 것이고, 교육청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좀더 신중한 고려를 통하여 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교육청 직원 사택 매입비 2억원은 이번 변경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골자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일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조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3
(끝에 실음)

● 의장 김영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이상일위원께서 원안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관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재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변동계획안에 대해서.

(이재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재희

이재희 교육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이 공유재산 변동계획안 제 29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에 청전국민학교가,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운동장으로 4차선 도로가 관통하면서 오늘 날자로 폐교가 됐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을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지만 제천 지역사 회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이처럼, 이처럼 집행되도 좋으나 하는 원성이 대단하다 이겁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청전국민학교 개교가 1973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3천명의 졸업생이 난, 이 학교가 오늘 날짜로 폐교가 된다 이겁니다.

또, 이 청전국민학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50억원을 들여가지고 용두국민학교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수정동의안을 제기한 이후로 한 2년 동안에 이 청전국민학교에 누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이제 처벌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교육장, 어느 관리과장이 있을 때 이런것이 저질러 졌다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건 일체 거론이 안된다 이겁니다.

더더구나 일선 교육청 관리과장은 그 시·군에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5년마다 수정될 때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20년이면 제천 그 도시계획이 적어도 너 댓번은 수정이 됐을 텐데 그동안에 교육청 힘이 미약하며는 정치권이나 집단 민원으로 해서라도 이 학교를 살렸어야 되는 이런 힘이 이런 성의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기 지금 도로로 관통되는데 불과 보상 5억 받고 이 학교가 폐교가 된다 이겁니다.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도 이게 수십년이 지나가지고 도시계획과 무관할 때 이 학교가 세워졌더라는 얘기가 안되지마는 1973년이며는 제천의 도시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학교가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장, 어떤 관리과장이 있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처벌은 안터라도 이렇게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무참히 손실을 봐가지고는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천 지역에서 원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에 조사가 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 오늘 좀 답변이 가능하며는 어느 교육장이 있을 때, 이 학교가 건축이 되고 이 학교가 폐교가 되는 그 과정을 소상히 좀 위원님들한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재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희위원 자리로 돌아감)

또 다른 위원, 본 건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세요.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세요.

(권혁풍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권혁풍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페이지에 청원교육청 관계입니다.

우리 교육위원 세분이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둘러보고 여러 그 참여한 인사들한테 자세한 얘기를 듣고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수국민학교 강당 개축입니다.

여기 보며는 825평방미터 250명으로 종전에 있던 105평자리 강당을 철거하고서 이걸로 확장해서 개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현재 배정액은 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보가 되지 않은 5억이 과연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걸 저희 교육위원들이 세분이 그쪽에서 알아봤더니 내용은 그 지역 모 국회의원께서 그것을 확답을 해주셨다. 5억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해주셨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서, 과연 이것이 어느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그냥 유력 인사의 언질만 받고도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믿고서 이런 계획을 통과시켜도 좋을 것인가, 물론 그 확보 약속을 그대로 지켜준다면은 참 별다른 탈 없이 잘 계획대로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의치 못할 때는, 계획안이 그냥 통과가 되고 아무런 실천없이 그냥 허사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걱정에서 다른데도 이런 곳이 있는가 아마 다른 곳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는가 하나 여쭙보고 어느만큼 5억이 확보 가능한가, 그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가, 요거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풍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 관리국장 신재철

시간을 주셔야죠.

● 의장 김영세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이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의 청전국민학교 폐교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교가 1973년도에 청전국민학교가 됐는데 그때 당시 이미 도시계획이 그곳에 나와 있었는데 학교의 입지 승인을 해준 제천시에도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도시계획이 나는 것을 알고 학교설립을 추진한 것이 당시의 교육청에 그 잘못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교육장님, 관리과장님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국민학교 강당 개축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좋습니다.”하고 말함)

저희들이 내수국민학교 강당은 그 지역 출신 인사한테서 5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그러한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3억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통상 강당을 질 때에는 저희 도에서 약 3억을 저희들이 지원

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조달을 하거나 아니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나 이러한 데서 지원을 받는 그러한 강당 신축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5억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양반이 틀림없이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5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완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 의장 김영세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보충질의 하세요.

● 위원 이재희

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자료로 제출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전번에 원월생활관을 폐쇄할 때는 시행착오도 있지만 저는 그 결단력에 아주 찬사를 보내고 참 그게 당초에는 폐교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더이상 투자를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시인하는 것은 좋은데 요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느 교장 연수라든지 관리직 연수에는 꼭 익명이 아니라 이런 폐교된 사례를 들어가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좋은 교재로 삼아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에 알겠습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의장 김영세**

에 권위원, 뭐 보충질의 있으면 하세요.

● **위원 권혁풍**

그 음성의 수봉국민학교라든가 혹은 단양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가의 특별보조가 있어서 강당을 짓고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급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강당 계획을 미리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어느만큼 실천 가능하냐를 우리가 확실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통과시켜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견 유보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만약에 불가능할 때는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하겠다. 그것도 역시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성이나 단양처럼 이렇게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놓고서 변경계획안을 올려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가고 또 다른 곳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곳은 없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 **위원 권혁풍**

꼭 그렇게 예산 확보 없이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수 국민학교 강당관계는 당초에 금년 바로 년초에 이것을 저희들에게 5억원을 주도록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정이 바로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는 건대 거의 틀림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권혁풍**

글쎄 만약에 안됐을 때 우리가 계획을 통과 시켰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불확실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들 입장으로서 거의 확실한 걸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안될 때에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금,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완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게 1년마다 다시 하계끔 되어 있는 거니까 금년도에 교부금을 못받는단든지, 원

조금이 못온다며는 실제 불가능하며는 내년도에 이게 재론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권혁풍**

그럴수 밖에 없어요.

● **위원 김광수**

의장님!

● **의장 김영세**

예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위원 김광수**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권혁풍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각 지역마다 강당을 개축을 하고 싶어 한다든가, 또 강당을 신축하려고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어느 특정인이 그런 보조금을 약속을 한다고 해서 지금와서 다 된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할 적에는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강당을 새로 짓고 싶어한다든가 또는 있는 것이 적어서 개축을 하고싶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식으로 여기 올라왔는지 안올라왔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지방적으로 그런것이 있다고 할 적에 사전에 그런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이걸 해야지 타당하지 그

러한 말만 듣고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본다고 할 적에 우리 옥천같은데도, 삼양국민학교에도 학생이 2천 5,6백명 됩니다.

강당이 너무 적어서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국회의원이 그런 말은 열번도 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이렇게 볼 적에는 뭐 시행이 되리라고 믿습시다마는 그래도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선후 맞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권혁풍위원의 발언에 전적 동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 **의장 김영세**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좀 사정이 특수합니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임기가 8월 달에 끝나기때문에 공유재산 변동계획을 우리가 심의할 기회가,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획은 요번으로 금년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마칠려고 했는데 보니까 한,두가지가 빠졌어요.

한,두가지가 빠져서 3월달에 추경예산이 올라 올 적에 한,두가지 보완이 되겠지만 그렇게 아시고서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절차도 맞습시다마는 요 문제는 이렇게 양해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때는 보조에

[제47회-제2차]

산이 올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또 우리가 보조 예산이 안오며는 그냥 이거 무로 돌아가는 거, 내년도에 가서 공유재산 계획, 다시 변동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어떻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 마치시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그러면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의견이 다른 분 없으시죠!

(위원 모두 침묵)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일위원의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거수)

예 전원 일치, 그럼 반대하시는 분 없기 때문에 표결 결과 전원 일치로 수정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처리는 마치겠습니다. 기타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일

의장님!

● 의장 김영세

예 이상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상일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신축 중인 충북공고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날 신축 중인 충북공고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사 진전상황으로 보아 3월 4일 개교와 입학식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첫째로 오늘 현재로 교실, 관리실 및 기초시설공사가 어느정도 진전이 되었느냐, 그리고 3월 4일로 예정된 입학식은 제 날짜에 가능한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본관에

3,4층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식당, 매점등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학교 인근에도 상점이나 식당이 없어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점심식사 문제로 큰 걱정거리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직 봄이라고 하지만 날씨가 몹시 찬데 점심시간에 온수 공급은 가능한 건지, 네번째로 학교가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학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등·하교시에 교통문제는 시 당국과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또 협의가 이루어 졌다면 버스가 몇회정도 운행할 계획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로 학교앞 도로가 급커브에 경사가 심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 커브에 동산이 가려져 있어서 전면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학교앞에 교통신호등 유치가 시급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며칠전 신문 보도에도 교통신호의 설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 그 협의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내에 설치돼 있는 상수도 관 때문에 상당히 학교로나 상수도를 관리하

고 있는 관청이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상수도 관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일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이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혁풍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권혁풍

제가 일선 학교 졸업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도 초청을 받고서 가서 몇 학교를 지역 학교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둘러보면서 여러가지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실정 파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의 분위기가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행정 당국에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오신 결과 현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실감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어딘가 모르게 활발해 지고, 활달해 지면서 학교 경영도 자율의 냄새가 풍겨지고 해서 과연 우리 교육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참으로 우리 교육 행정 당국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우선 그러한 생각을 하고서 참 고맙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몇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의 문제는 지금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세계화 추진에 심지어는 큰 걸림돌이 되고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누구나 다 느낄수 있는 공통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개혁에 올바른 방향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결과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개혁의 방향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민주화만 되면 될 거 아니냐, 교육민주화, 또 정치도 민주화되고, 경제도 민주화되고, 사회도 민주화되면 우리 교육도 민주화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방향이고 이것이 바로 교육개혁의 방향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럼 민주화라는 건 또 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유와 평등, 그렇다면 교육도 자유롭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싶은 공부를 하고 또 모든 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이 두가지만 잘 실천이 되며는 교육 민주화는

이룩되는 것이며, 교육개혁의 방향은 바로 잡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자유화는 뭐냐, 다시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자기 하고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저 하고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참 잘못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화를 부르게 됩니다. 교육의 자율화,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규율하는 그런 자율화다. 따라서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는 그러한 그 자율화, 이것이 자율화다. 그래서 교육행정도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책임을 엄하게 묻는 그런 자율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등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며는 교육평등을 이룩하느냐 평등을 보통기회의 균등이라고 그러죠. 결과를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똑같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부간에 돈이 있는 학생이든 없는 학생이든 간에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또 도시농간에 도시와 농촌간에 차별을 두지 말고 어떤 지역간에 어떤 지역, 무슨 유능한 국회의원 있는 데서는 더 많이 교육투자를 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교육투자를 덜하고, 홀대

하고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또 남녀간의 성별 대우를 차별을 뒤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이런 몇가지 기회를 고루게 줄 때, 이것이 바로 교육의 민주화가 되며, 이게 바로 교육의 올바른 방향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저도 다시 한번 반추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그 질문의 배경을 깔고서 질문을 네 다섯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설기준령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즉 학교같으면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따로 있지 않고, 단설 학교가 아닌 공설 학교가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공설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도 똑같이 기준령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늘 변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그러냐 하려는 이게 작은 얘기같지만 사실은 이게 학교 학생의 수용에 기본 시설이 되겠습니다.

교실과 변소, 이걸 기본 시설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교실과 변소는 어느시에 수영장을 못만든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마는 특별히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폐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나 얼마 있으

면 그 학교는 없어질 학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며는 물론 계획도 바꿀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남녀가 공설된 이런 학교에 어떤 기준을 달리하는 그런 시설기준령이 지금 돼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혹시 잘못된 게 있더라는 물론 시설기준령을 우리가 만들수는 없습니다.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혹시라도 있으면 고쳐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지금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증거가 교원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특별전형의 교원수가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통계수를 보니까, 금년도에 그 특별전형 교원이 서울이 25명, 경기도에 22명인데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무려 그 두배가 넘는 42명이 지금 특별전형 교원수가 우리 충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을 보니까 '95년도 교육계획에도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아주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서서 교육 석사과정을 특별연수를 68명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에, 이래서 우리 충북이 앞서

가는 교육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어떠한 시·도에 갖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가장 앞서가는 충북이다. 그래서 우리 본도 교육 위원으로서 느끼고 다른 교육위원을 만나 도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충북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배출된 석사나 박사들이 과연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적재적소에 얼마만큼 배치가 되겠느냐, 공부를 시켰으며는, 연구를 시켰으며는 그만한 결과를 그 교육현장에 투입을 시켜서 들어간, 투자한 액수 이상으로 우리가 뭔가 회수를 해야 될텐데 과연 그만큼 투자를 해서 인재를 길러 냈으면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느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요거를 적재적소 배치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는 두번째 거와 관련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현장에 여교사가 아마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초등에는 아마 7,80%이상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교사를 놓고 볼때 남자 대 여자, 남교사 대 여교사가 절대다수가 여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교사들이 교감 승진이라든가, 교장 승진이라든가, 기타 전문직 승진에 있어서도 어느만큼 평형, 형평이 맞는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어느만큼 그 분들이 사기를 진작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는가, 아까 두번째 질문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석사, 박사도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에 못지 않은 여자의 연구활동이 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투자해서 길러낸 그 인재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좀 의문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은 우리 충청북도에 인구가 전반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느곳에는 아주 급등 지역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 음성 지역입니다.

음성 지역은 참 인구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0년도 7만 4,817명이었던 우리 음성군 인구가 '93년도 말에는 8만 1,29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3년 사이에 약 한 7,8천명의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지역이 있습니다.

음성 중에서도 역시 대소나 소이같은 지역에 꾸준한 인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시다시피, 그 공장 유치가 되어서

그에 따른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따라서 학생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는 그 유아들이 문제입니다.

즉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농사도 짓고, 공장에도 같이 부부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참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우선 급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등 지역에서는 뭔가 유아교육을 위한 시설을 좀 보다 확충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성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계획을 들춰 봤더니 우리 '95년도 교육계획에도 역시 우리 당국에서는 그 교육계획학습 활동의 다양한 교육여건의 조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하나 설치해 놓으시고 그거를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으로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유아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 확대하겠다 하는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벌써 미리부터 알고 계시고 다 계획이 서있는 것을 보고서 참으로 잘하고 계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되 우선 인구가 급등지역, 좀 급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선 시설을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전일제, 특히 그냥 유아교육시설만 갖추면 안되고 아주 욕심을 낸다면 아주 전일제 그런 유아교육시설, 여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종일반운영, 이것을 현지에서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구체하게 돼 있는가 어느정도,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장에 교사들께서도 그야말로 자기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따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소양에 맞는 분야를 택해서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미술분야는 미술작품을 낸다든가, 서예 부분이라든가 기타 시를 쓰는 시집을 내는 분도 많고, 혹은 수필집을 내는 분도 많고, 혹은 기타 여러가지 자기의 소양에 맞는 그런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얼마전에 어떤 교사가 책을 출판해서 출판 기념행사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에 참 좋은 활동이다. 전 그렇게 보고서 이 분들은 좀더 격려를 해주고 좀더 용

기를 복돋워 준다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책, 우리 충청북도 관내의 교사들이 만든, 출판한 그런 그 책들을 분야별로 어떻게 좀 콘테스트라고 할까, 그 뭔가 전시회라고 할까, 이런 걸 해서 거기에서 분야별로 어떤 시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분들의 사기를 돋우고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학교에도 또 교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교의 특색을 살리면서 교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군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지의 그 전시회라든가 이것도 역시 또 학생들의 소질개발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울러 교사와 학교의 교지, 이것을 좀 전시회를 해서 이 분들의 사기를 돋겨주는 그런 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섯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권혁풍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에

● 의장 김영세

중등국에도 해당이, 분야가 있죠.

어떻게 초등국소관도 있고, 어떻게 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관계자 모두“예”하고 말함)

그럼 순차적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죠.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이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공업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공고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입찰로 집행을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본 그런 공사입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입찰 집행하는 거 보다는 시일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94년 6월 28일 날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이 7월 1일날 착공이 됐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금년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이 준공예정일까지는 저희들이 공사가 전부 마무리가 돼서 개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금 관계 시설직들이 나가서 매일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교를 저희들이 11월, 3월 11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월 4일로 예정을 했던 것이 3월 4일 날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 어수선한 여러가지 잡일도 있고 그래서 어수선하기 때문

에 11일로 연기를 하도록 새로 발령이 나선 교장선생님과 과학기술과와 합의를 봐가지고 11일 날 개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후 약 1주일 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잔무정리를 전부 완료하며는 개교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2차 공사 즉 3층부터 5층까지의 그 공사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2차 공사는 가능한한 수업에 지장이 없는 그 레미콘 타설이나 이런 것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고 낙하물 방지의 보강과, 그 다음에 위험표지판의 설치 등을 해가지고 공사장 주변에는 또 학생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당과 그 매점의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당초에 식당하고 매점을 저희들이 지었으면 좋았는데 그러한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기숙사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식당은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인근에 그러한 그 식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이번 제1회 추경 3월 달에 저희들이 의안으로 상정을 하겠습니까마는 1회 추경에 식당동을 건립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이 식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당이 되면 매점도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3월달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수공급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시설돼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온수는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더라도 찬 날씨에 온수를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학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우측에 있는 길로 전면에는 도로로 시내버스가 19회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청주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교하는 3월 11일부터 19회 말고 69회를 중회해서 도합 88회가, 시내버스가 다니도록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버스 출고가 좀 늦을 경우 그걸 대비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임시 차라도 배치를 해서 학교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제47회-제2차]

다음에 그 정문앞이 경사가 있는 곳이고, 또 특히 커브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위험성이 많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서부경찰서와 신호등 관계를 설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쪽의 답변은 우선은 통행량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하기는 어렵다. 다만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점멸 경광등을 설치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차들이 그 정문앞에 학생들이 통학하는 장소를 지나갈 때는 점멸 경광등을 설치해서 좀더 서행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학교앞으로 지나가는 상수도 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이 상수도 관을 이전하는 데는 약 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충북공고를 설립할 때부터 이 상수도 관을 옮겨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막대한 8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그 설치 상수도 관의 설치된 장소 위는 일체 건물을 짓지 않고 거기에는 큰 중형차들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업소와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건물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

다며는 이 상수도 관은 옮겨야 마땅하지 않은가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일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등학교의 남녀공학 학교와 이 단설학교의 시설기준령이 서로 다른데도 공동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행 학교 시설에 적용되는 시설 설비기준령은 남녀가 별도로 소요되는 시설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도 남녀 별도로 소요시설을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백명 중에 여학생이 50명 남학생이 50명이면 여학생에 소요되는 변수가 몇칸이 있어야되고 남학생에게 소요되는 변수가 몇칸이 있어야 된다는 게 시설기준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적용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설 설비기준에 의한 기준을 전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차적으로 그 시설 설비기준령에 맞게 확충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질문하신 위원 중에서 관리국 소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 위원 이상일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충북공고 그 공사 문제가 결국은 전국 입찰이 되기 때문에 착공일자와 준공일자 사이에는 사실 불과 반년 남짓 밖에 공사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위원 이상일

'94년 7월 1일날 착공해서 '95년 3월 4일 준공하게 되면 결국은 춥고 해 짧은 겨울,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고 부실공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 용역을 하고 기타 각종 허가를 얻어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해가지고 개교할 때까지의 시간이 좀 여유있게 잡혔으면, 그래서 금년도에 가령 부지매입, '95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으려는 올해 바로 설계 용역비가 철

가가 돼서 '96년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해 질때 완벽한 공사를 해서 '97년 3월에 개교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이상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공사를 좀 여유있게 계획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는지.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던 땅 매입해 놓고, 그 다음에 여유있게 저희들이 학교를 지며는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많이 감소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정부에서 좀 여유있게 미리 주는 게 아니고 개교에 바로 임박해서 자금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공고, 이 문제가 그러한 공기단축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공사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라도 이러한 공기때문에 너무 조들리는, 시간이 그렇게 얇매어 가지고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일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정문앞에 점멸등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전기사들이 준법정신이 있으면 점멸등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리는 기사들

이 반수 이상입니다.

근데 거기 과연 점멸등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효과를 볼런지 상당히 의심스러우니까 이걸 하여튼 계속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신호등이 꼭 설치되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19회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69회가 증편이 되고 하려는 자동차 왕래 댓수도 많이 늘으니까 아마 좀더 저희들한테 유리한 신호등 설치에 유리한 조건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보충질의 없으세요?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 **위원 권혁풍**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남녀간에 시설기준령을 별개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 부족한 예산 타령을 하셨습니다.

기준령을 보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대변기가 국민학교는 학생 30인 이상 한개, 또 국민학교 남학생 이걸 공통된 학교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50인당 한개, 기타 여학생은 25인당 한개,

이렇게 남녀가 구별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예산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너무도 안 지켜지고 있다. 이 말씀여. 예를 들어서 모학교입니다.

저 음성지역, 자꾸 제가 음성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돌아본 학교가 음성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음성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음성의 모 사립학교인데, 여기는 시설기준령에 여자 변소가 여자가 158명인데 전혀 없습니다.

여자 변소가 따로, 그래 일곱개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남자의 것이 두개가 남아요. 그래 그걸 같이 쓰라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도 여학생들이 그 절대수가 부족하니까 수세식 변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수거식 변소를 간다든가 해서 참 뭐 변소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니까 이렇게 홀대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역에 여인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뭐 이게 변소 짓는 거, 큰 물론 도에서 볼때는 전체적으로 볼때는 큰 액수입니다마는 그 자원 배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이상이 넘는 수영장을 여기저기 지면서, 돈이 없어서 못겨준다. 이렇게 말이 용납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고 참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보고

하라면 저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아 우째 이 지역에는 변소도 제대로 못져 주느냐”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또 교사용은 전무입니다. 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건 아닌데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지금 권혁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소가 기준이 남자나 여자나 시설기준령에 정해져서 그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세식 변소를, 지금 저희들이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래식 변소도 같은 숫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세식 변소는 부족하더라도 재래식 변소가 남아 있으며는 같은 기준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학년은 수세식 변소를 쓰고, 몇 학년은 재래식 변소를 써라,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의 변소사용을 제한을 하는 학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수 없이 그 변소가 아직 내용연수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소를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저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수영장 30억을 투입하는데 변소를 못짓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30억 들어서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필요한 시설이고, 변소는 변소대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변소하고 결부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혁풍**

될수 있으면 좀 자본을 고르게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관리국소관 되셨죠?

● **위원 권혁풍**

예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다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권위원님이 네가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권위원님의 이번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해 주신 석, 박사 취득자들에 대한, 취득 교사들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

[제47회-제2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충북에 그 임용관계는 어떠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이 석, 박사 소지자가 초등은 180명, 아니 초등이 교장 셋, 교감 16, 교사 149, 장학관 하나, 장학사 하나, 전문직 12, 이래서 180명입니다.

또 중등이 1,341명입니다. 석, 박사가.

아까 권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국교원대학교에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 개설로 말미암아 큰 은정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타시·도에 석, 박사 수를 비교를 할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역시 파악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 저희 도만해도 타시·도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월등히 월등히 많다. 그건 한국교원대학교가 본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큰 은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재적소의 배치, 이 문제를 권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석, 박사 출신을 전문직에 행정직으로 발탁, 임용하는 것이 적재적소 배치냐, 권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석사, 박사 과정에 그 과정을 보며는 이 한국교원대학교 과정만 보더라도 교육심리 전공, 무슨 뭐 국어전공, 또 사회전공, 미술 뭐 그 개설이 석사과정 개설이 일선학교에 일선학교 교육에 맞는 그러한 과정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석, 박사들을 교육행정직으로 발탁을 할

려며는 거기에 교육행정, 그 석사과정에 교육행정 전공이 있는데, 역시 그 사람들은 거기 나온 사람들은 우리 교육행정직으로 발탁하는 것이 이게 관련이 된, 그 업무와 관련이 되는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교육심리를 한 사람, 사회전공을 한 사람, 또 무슨 국어전공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일선학교에서 학교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견해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말씀을 드리며는 물론 권위원님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행정직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적재적소다.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마는 금년에도 금년 3월 1일자에도 석, 박사 출신에서 그게 석사출신이겠죠. 초등같은 데는 지금 박사가 지금 현재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배출되지는 안했습니다.

초등에서는 올해 3월 1일자에 전문직으로 두 사람 2명, 또 중등에서는 13명, 이래서 3월 1일자에 석사학위 수여자가 15명, 15명이 이번에 전문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하여간 적재적소 배치라는 그 견해를 교육행정 전공자들은 교육행정에서 역시 저희 교육행정에서 임명을 해주는 것이 적재적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전공분야에 따라서 학교에서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석, 박사들의 대우냐, 마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적재적소, 적재적소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석, 박사 우대문제는 역시 승진규정에 석사 학위 소지자는 승진에 있어서 1점을 가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박사학위 소지자는 승진규정에서 2점의 가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승진상 남교사, 여교사를 막론해 놓고 승진의 기회에 있어서는 그런 가산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신 여교사, 역시 두번째와 맥락을 같이 하시는 이런 질문이신데 여교사 비율이 얼마고 또 승진의 기회, 또 전문직 임용기회 그 여교사들도 확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여교사와 남교사의 비율은 40%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현재 초·중등이 여자 관리직 숫자를 말씀을 해 드리며는 교장, 교감 또 유치원 원감 또 전문직, 총 합해서 39명입니다.

여교사가 초중등 합해서 관리직에 있는 것이 49명입니다.

그리고 내역별로 말씀을 드려보려는 교장이 8명, 또 교감이 12명, 또 원감이 6명, 또 전

문직이 13명, 그래서 도합 여교사 중에서 전문직, 관리직 39명이 지금 있습니다.

역시 그 여교사들을 어떻게 여교사 중에서도 석사학위 소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의 석사학위 소지자들의 그 학위는 석사학위 논문을 저희가 초·중등 마치는 대로 지금 저희가 수집을 하고 이렇게 불적에 저희도 그걸 비치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위취득 후의 활동이 지금 조직을 해가지고서 역시 그런쪽에서 자기네끼리 조직을 해가지고서 역시 그런 쪽에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서 책도 발간을 하고 논문집도 발간하고 그 뒤에 그런 활동한, 그 뒤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청에 석사학위 논문이 전부 수집은 안 됐습니다마는 다수 수집을 하고서 저희 전문직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와 활용방안을 강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에 유치원의 그 종일제 운영문제, 이게 '94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는데 '9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6개입니다.

'95년도 계획은 49입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종일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 95개 인데 우리 충북은 지금 세개, 작년엔 하나였다가 금년에 두개를 지정을 해서 세개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저희 독립원사를 짓고 있는

곳, 11군데는 전부 전일제로 유치원 전일제로 이렇게 지정을 해 운영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급증 지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소이, 음성 소이하마는 작년에도 전일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3시에서 4시까지 그 유치원 원장의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3시에서 4시까지 연장운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대소는 못했습니다마는 소이는 4시까지, 보통 전일제라며는 8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소이는 3시에서 4시까지 연장운영을 했고 학교장, 학교장들의 또 유치원 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금년도도 많이 이렇게 확산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에 질문해 주신 교직원들의 출판 현황인데, 저희가 조사를 속히 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 지금 교직원들이 얼마만큼의 출판물을 냈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자료로다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출을 해 드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 그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학교의 교지발간 현황인데, 이건 아주 참 교지는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서 전체학교가 다 발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년이 제가 교지를 대해 봅니다마는 참 내용도 충실하고 모든 책의 체제라든가 날로 참 교지에 대해서도 열성적으로 일선학교 교

장선생님들이 발간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외에 교지 이외에도 여러가지 졸업논문이라든가 심지어 국민학교 학생들 졸업논문집 뭐 이런 것도 발간을 하고 있고 올해도 중학교에서 좋은 졸업논문집을 발간을 해 주시고 학교에서 이 출판물을 발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그 출판물을 우리가 어떻게 콘테스트를 하느냐, 학교는집 콘테스트를 도에서 합니다. 8월달에 도에서 우수작품은 교육부에 올라갑니다.

교육부에서도 문집 콘테스트를 해서 저희도가 그 실적을 말씀드리며는 '93년도 교육부 콘테스트에서 괴산교육청에 '느티여울'이라는 그러한 장학자료가 장려상을 탔고, 또 같은 해 '93년도 학교부문에 교원대 부속 월곡국민학교에 '미호천'이라는 잡지가 우수상을 교육부로부터 탔고, 또 '94년도에는 작년 도에요. 청주대성국민학교에서 '대성동산'이라는 그런 교지가 우수상을 탔습니다.

도에서 우수, 장려 실적은 우수는 학교급 별로 최우수 하나, 우수 다섯 학교, 또 장려 열 학교, 이렇게 선정을 해서 매년 8월에 콘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 권혁풍

에 제가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학위소지자의 적재적소 배치관계는 그 인사원칙의 경력위주로 하지않고 그 보다도 능력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적재적소라는 그 말씀을 꼭 교육행정직에다가 혹은 전문직에만 뽑아 올려서야만이 적재적소냐 전 그건 아닙니다.

꼭 뭐 장학사가 되고 연구사가 돼야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즉 연구를 하고 그 결과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사람, 나이로 본다면, 혹은 앞으로의 전망이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여러가지 면에서 능력이 있고 앞으로 키우며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 할 때는 좀더 어떤 학교에 두는 거 보다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그 사람의 그 능력이 보다 넓게 이렇게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조치지, 꼭 무슨 전문직이나 여기에다가 발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예를 들어서 교육심리를 전공한 사람이 학교에서 무슨 사무분장을 맡을 때 엉뚱한 거를 맡는다든지 하지 말고 교육심리를 연구했으며는 상담을 맡는다든가 그렇게 적재적소겠죠. 뭐 교육심리를 맡은 사람이 무슨 저 새마을 주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고, 물론 지금 새마을 주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좀 거기에 맞는 이러한 그 배치를 하고 있는가, 능력위주라고 한다면 좀더 그래도 그쪽에 뭔가 양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의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좀더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 나이도 젊고 의욕이 대단하다 하는 그러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좀 공평하게 발탁을 해서 누가 보든지 “야 우리 충북교육은 정말로 능력위주로 하고 있다” 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에 알겠습니다.

● **위원 권혁풍**

그 다음에 여교사의 대우 관계는 제가 어떤 그 여교장, 여교감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뭐가 억울하냐, 구체적으로 얘길 안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교사의 절대수로 볼 때는 여교사가 상당히 남교사보다 상당한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얼마전에 그 국회의원도 와서 우리 도에 와서 국정감사 때도 아마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째 우리 충청북도에는 여자 학무과장이 하나 없느냐, 혹은 여자 교육장은 말할것도 없고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 해서 충북이 마치 아주 폐쇄적이고 남녀를 불공평하게 대우해 주는 이러한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이 그야말로 교원대학이 옆에 있어서 여러가지 은전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보다 월등한 그런 교육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받았으며는 그거에 대한 산출을 좀더 거기에 맞는 여자라고 해서 좀더 대우를 안 해준다든가 역올한 일이 없도록 해서 그 사람들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여자라고 해서 남자만 못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더 생각해 주시고 좀더 여자가 우리 충북에서는 정말 양반이라 그런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인상을 받지 않도록 좀더 개방적으로 민주화된 그런 그 인사 원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 교사 출판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출판물이 현재 얼마만큼 출간이 됐느냐는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권위원님께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권혁풍

그리고 그 교지에 콘테스트가 하고 있는 줄은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전에 처음 알았는데, 얼마전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은 그걸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각 학교에

지금 교지라는 것이 학생들의 그 발표의 장으로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콘테스트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 결과도 알려주시고.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저희는 여름방학 때, 교육부에서는 9월에 합니다.

● 위원 권혁풍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권위원께서 부탁 말씀이지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죠.

● 위원 권혁풍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면는 중등교육도 이 소관 합해서 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합해서 하셨죠.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더이상 질문없으시죠?

(위원 모두 “예” 하고 말함)

질문 마치시죠?

(위원 모두 “예” 하고 말함)

그러면 이것으로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폐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정인영,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재무과장 이상찬,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3

(별첨1)

議 事 日 程(案)

第 47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5.2.24-2.28(5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5.2.24(금) 14:00 15:00	※ 교육위원 협의회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산회】	회 기 2.24-2.28. (5일간)
2.25(토) - 2.27(월)	【본회의 휴회】 ※ 의안관련 현장방문 정원 내수국, 단재교육원, 증평도서관, 충주금릉 국 신설부지, 제천농고, 단양가산방곡분교장 폐교 시설, 옥전이원국, 옥전정산국, 영동양산가선분교 장 폐교시설, 영동양강산막분교장 폐교시설	
2.28(화) 14:30	【제2차 본회의 개의】 1.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의결 2. 기타안건 처리 【제2차 본회의 산회】 ※ 폐 회	

1/2

의안번호	제47-호
의결 년월일	1995. 2. 회 (제 회)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1 회 변경 계획 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5. 2. 16.

'95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47-1

제출년월일 : 1995. 2. 16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처분.사용허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상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 내역
- 취득

구분	당		초		변		정		증		감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토지	27,241.0	4,963,040			41,071	7,232,257			13,830			2,269,217
건물	41,433.4	20,492,585			54,048.85	30,328,678			12,615.45			9,836,093
공작물	19 식	470,491			19 식	470,491			0			0
계		25,926,116				38,031,426						12,105,310

- 처분

(단위 : ㎡/천원)

구분	당		초		변		정		증		감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토지	70,678.3	104,652	124,951.6	263,992			54,273.3		159,340		
건물	10,377.49	866,568	15,537.4	1,500,744			5,159.91		634,176		
공작물	8 식	18,421	8 식	18,421							
계		989,641		1,783,157					793,516		

- 유상사용허가

(단위 : ㎡/천원)

구분	당		초		변		정		증		감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토지	13,106.7	4,097	49,483.7	17,658			36,377		13,561		
건물	948.51	5,431	3,278.84	251,053			2,330.33		245,622		
공작물											
계		9,528		268,711					259,183		

- 무상사용허가

(단위 : ㎡)

구분	당		초		변		정		증		감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토지	0		15,671				15,671				
건물	0		915.84				915.84				

제안 근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95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내역 : 덧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95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내역

(단위: m²/천원)

시군	구분	재산별 토지	기관명	사업명	당		변		증		사 유	비 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본청	취득	토지	부강공고	사유지 매입		195	11,798	195	11,798	195	학교 부지	10 쪽	
			단양공고	"		1,841	65,724	1,841	65,724	1,841	실습 부지	11 쪽	
			혜화학교	"		99	1,258	99	1,258	99	학교 집입로	12 쪽	
			소 계			2,135	78,780	2,135	78,780				
	처분	토지	제천농고	도로 편입		4,610	39,121	4,610	39,121		도시계획으로 도로 편입	13-14쪽	
취득	건물	물	학영수	수영장 시설		2,382	3,138,267	2,382	3,138,267	2,382	생활체육시설 및 학생 수영시설	15 쪽	
			단교	재원	연수실		2,439	2,000,000	2,439	2,000,000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연수시설	16 쪽
			충주농고		실습실 증축	701	338,903	1,111	533,280	410	194,377	부족(기준2, 보유1, 과부족1)	17 쪽
			제천농고		"		1,256.4	577,144	1,256.4	577,144		부족(기준8, 보유4, 과부족4)	18 쪽
			광산공고		"	893	431,727	1,478	728,697	585	296,970	부족(기준9, 보유6, 과부족3)	19 쪽
			제원고 (제천공고)		"			360	174,800	360	174,800		부족(기준6, 보유4, 과부족2)
			충북상고	"		645.3	331,114	645.3	331,114		부족(기준15, 보유9, 과부족6)	21 쪽	

'95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내역

(단위:㎡/천원)

시.군	구분	재산별	기관명	사업명	당 초		변		경		증		사	유	비 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본 청	취득	건물	소 계		1,594	770,630	9,671.7	7,483,302	8,077.7	6,712,672						
		토지	덕성국	사유지 매입			81	11,673	81	11,673			시설결정내 사유지		22 쪽	
청 주 교육청	취득	"	교육청	집중재산매각			188	13,483	188	13,483			건물소유자에게 매각		23 쪽	
		토지	(가칭)국 금융	토지 취득			11,570	2,172,560	11,570	2,172,560			금릉동 택지개발지 구내 '97학교설립		24 쪽	
중 주 교육청	사용 허가	"	강천국 단암분교	유상사용허가			11,174	4,916	11,174	4,916			(주)아인힐-노인복지 휴양시설		25-26쪽	
		"	성남국 동신분교	"			14,098	5,645	14,098	5,645			건국대 의대 요양 시설 (건물 신축 개원시까지)		27-28쪽	
제 천 교육청	소계	건물	강천국 단암분교	유상사용허가			25,272	10,561	25,272	10,561						
		"	성남국 동신분교	"			786.93	156,511	786.93	156,511			(주)아인힐-노인복지 휴양시설		25-26쪽	
제 천 교육청	소계	토지	청천국	도로편입			1,452.23	243,622	1,452.23	243,622						
		건물	도서관	도서관 매각			4,287	17,705	4,287	17,705			도로 편 입		29 쪽	
							1,190	212,019	1,190	212,019			시청에서 매입		30 쪽	

'95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내역

(단위: m²/천원)

시.군	구분	재산별	기관명	사업명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유	비 고
					면적	금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청 원 교육청	취득	건 물	내 수 국	강당 개축		825	800,000	825	800,000		노후로 인한 개축	31 쪽
	처분		내 수 국	강당 철거		349.8	3,085	349.8	3,085		노후로 인한 철거	31 쪽
	사용 허가	토 지	강 내 국 저 산 분 교	무상 사용		15,671		15,671			한국교원대학교 연수원	32-33쪽
옥 천 교육청			만 수 국 공 북 분 교	유상 사용		11,105	3,000	11,105	3,00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원	34-35쪽
		건 물	강 내 국 저 산 분 교	무상 사용		915.84		915.84			한국교원대학교 연수원	32-33쪽
			만 수 국 공 북 분 교	유상 사용		878.1	2,000	878.1	2,00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원	34-35쪽
옥 천 교육청		토 지	중 향 국 군 북 분 교	폐교재산매각		12,289	11,846	12,289	11,846		보존불필요 - 시설사업제투자	36-37쪽
			이 원 국	사택부지매각		4,470	28,831	4,470	28,831		"	38 쪽
			청 산 국	"		707	17,806	707	17,806		"	39 쪽
			소 계		17,466	58,483	17,466	58,483				
		건 물	중 향 국 군 북 분 교	폐교재산매각		905.74	89,292	905.74	89,292		보존불필요 - 시설사업제투자	36-37쪽
			이 원 국	사택 매각		33	2,251	33	2,251		"	38 쪽
			청 산 국	"		62.8	3,146	62.8	3,146		"	39 쪽
			소 계			1,001.54	94,689	1,001.54	94,689			

'95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내역

(단위:㎡/천원)

시.군	영	구분	재산별	기관명	사업명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유	비 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영	교육청	취득	토 지	도 서 관	국유지 매입			44	6,204	44	6,204	44	6,204		도서관 부지		40 쪽			
						건 물	도 서 관	도서관 신축			1,650	1,000,000	1,650	1,000,000	1,650	1,000,000		노후 및 시설 협소 로 이전 신축		40 쪽
									소 계	교 육 청	사택 매입			330	200,000	330	200,000	330	200,000	
		토 지	도 서 관	도서관 부지 매각			1,980	1,200,000				1,980	1,200,000	1,980	1,200,000					
					부 상 국	사택부지매각			258.3	8,678	258.3	8,678	258.3	8,678		신축도서관 건립		42 쪽		
							양 산 국 기신분교	폐교재산매각			638	416	638	416	638	416		보존불필요- 시설사업제투자		43 쪽
					소 계	도 서 관			도서관 건물 매각			2,288	3,409	2,288	3,409	2,288	3,409			
		부 상 국	양강원분교					8,829		9,952	8,829	9,952	8,829	9,952				46-47쪽		
				양 강 국 신마분교							7,715	5,801	7,715	5,801	7,715	5,801				48-49쪽
		건 물	도 서 관		도서관 건물 매각				19,728.3	28,256	19,728.3	28,256	19,728.3	28,256						
소 계	부 상 국			사택 매각				321	20,890	321	20,890	321	20,890		신축도서관 건립		42 쪽			
							99.2	5,924	99.2	5,924	99.2	5,924		보존불필요- 시설사업제투자		43 쪽				

'95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내역

(단위:㎡/천원)

시.군	영역	구분	재산별	기관명	사업명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유	비 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영 동 교육청	건 물	처분		양 산 국 가신분교	폐교재산매각			202.2	38,178	202.2	38,178	보존불필요- 시설사업재투자	44-45쪽
								869.9	106,114	869.9	106,114	·	46-47쪽
								739.3	103,802	739.3	103,802	·	48-49쪽
	소 계						2,231.6	274,908	2,231.6	274,908			
괴 산 교육청	토 지	취득	청 천 중 교 육 청	불용토지매각			694	1,526	694	1,526	보존불필요- 시설사업재투자	50 쪽	
							1,038.51	798,421	1,038.51	798,421	기부채납	51 쪽	
단 양 교육청	건 물	취득	단 양 국 교 육 청	증평도서관 기부채납			599.2	280,000	599.2	280,000	유아교육	52 쪽	
							95.04	45,000	95.04	45,000	교직원사택 증축	53 쪽	
							694.24	325,000	694.24	325,000			
	소 계						7,300	766	7,300	766	보존불필요- 시설사업재투자	54-55쪽	
	토 지	처분		가 산 국 방곡분교	폐교재산			386.97	49,475	386.97	49,475	·	54-55쪽
	건 물												

관계법령(부분)발췌서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별첨3)

의안번호	관련 제47-1호
의결 년월일	1995. 2. . (제 회)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자	이상일 교육위원 외 3인
발의년월일	1995년 2월 27일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7-1호
----------	--------------

발의년월일 : 1995년 2월 27일

발 의 자 : 이상일 교육위원
외 3인

1. 수정이유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중 영등교육청 직원사택 매입 계획은 폐교 재산인 기본교육시설을 처분하여 교육청 직원사택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재산의 재원은 일선 교육환경개선 부문에 우선 투자함이 바람직할 것이고, 교육청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좀 더 신중한 고려를 통하여 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교육청 직원사택(330㎡, 200,000천원) 매입 계획은 이번 변경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영등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취득계획 중 교육청 직원사택(330㎡, 200,000천원) 매입계획은 금회 변경계획안에서 이를 삭제함.

3. 수정안 : 따로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영동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취득계획중 교육청 직원사택(330㎡, 200,000천원)

매입계획은 금회 변경계획안에서 이를 삭제한다.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기관명 : 영동교육청

(단위 : m²/천원)

구분	재산별	사업명	① 원안(변경계획안)		② 수정안		③ 증감(②-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취득	토지	영동도서관 국유지매입	44	6,204	44	6,204	0	0
		건물	영동도서관 신축	1,650	1,000,000	1,650	1,000,000	0
		교육청 사택매입	330	200,000	(삭제)		△ 330	△ 200,000
		소계	1,980	1,200,000	1,650	1,000,000	△ 330	△ 200,000
		계	2,024	1,206,204	1,694	1,006,204	△ 330	△ 200,000
처분	토지	영동도서관 부지매각	258.3	8,678	258.3	8,678	0	0
		부상국사택 부지매각	638	416	638	416	0	0
		양산국가선 분교매각	2,288	3,409	2,288	3,409	0	0
		양산국천태 분교매각	8,829	9,952	8,829	9,952	0	0
		양강국산막 분교매각	7,715	5,801	7,715	5,801	0	0
		소계	19,728.3	28,256	19,728.3	28,256	0	0
	건물	영동도서관 건물매각	321	20,890	321	20,890	0	0
		부상국 사택매각	99.2	5,924	99.2	5,924	0	0
		양산국가선 분교매각	202.2	38,178	202.2	38,178	0	0
		양산국천태 분교매각	869.9	106,114	869.9	106,114	0	0
		양강국산막 분교매각	739.3	103,802	739.3	103,802	0	0
		소계	2,231.6	274,908	2,231.6	274,908	0	0
		계	21,959.9	303,164	21,959.9	303,164	0	0
	합계		23,983.9	1,509,368	23,653.9	1,309,368	△ 330	△ 200,000